

보도시점 2025. 10. 22.(수) 17:00

배포 2025. 10. 22.(수) 09:00

## 농식품부 장관, 영농형태양광 실증 시험단지 현장 방문

- ‘영농형태양광 실증 시험단지’ 방문하여, 작물재배 현장 점검 및 농업인,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영농형태양광 하부에 심긴 양배추 작물 재배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지역농업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실증단지는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변화에 대한 실증을 연구하는 단지로 국내 기업들이 농업용 모듈 개발 등을 위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해당 단지는 트랙터 등 농작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주높이 3m, 기둥간 간격 4.2m로 설계되었으며, 지주 사이 가로보에 스프링 클러를 설치하여 농업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실증단지 개요 : 기후에너지부(前산업부) 100kW급 농가보급형 농업병행 태양광발전 표준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17~’20). ▲총 97kW 규모(600평) 태양광 설비. ▲일반형 모듈, ▲양면형 모듈, ▲투과형 모듈 설치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농업인들이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 중에 농업인, 태양광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질서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동물복지 환경정책관<br>농촌탄소중립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해청 (044-201-2631)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재목 (044-201-2640) |